

"복음통일을 위한 주간 기도 자료 Vol. 15

폭력의 악순환 끊기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북한 관련 정세 이야기

최근 남북한 간에 대북 전단 풍선과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온통 이와 관련된 소식이 이어집니다. 지난 5월 10일, 한 탈북민 단체가북한을 향해 대북전단 30 만장을 북한에 살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대응하여 5월 28일에 북한이 오물이 담긴 풍선 260 여 개를 남한을 향해 살포하고,5월 30 일에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18 발을 발사합니다. 북한은 6월 1 일과 2 일에도 720 여 개의 오물 풍선을 날려보냅니다. 그러자 대한민국 정부의 6월 2 일에 남한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발표를 냅니다. 6월 3 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기존 북한과 맺었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합니다. 며칠 뒤인 6 일에는 또다시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 20 만 장을 북한 땅에 살포합니다. 6월 8 일, 북한이 남한을 향하여 날려보낸 오물 풍선 330 여 개가 남한 땅 곳곳에 떨어집니다. 결국 9 일에 한국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합니다. 이렇듯 남북한은 지난 5월 10 일부터 6월 9 일까지 약 한 달간 서로에 대한 폭력의 악순환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국민은 이런 갈등과 강대강 대치가 혹여나 큰 전쟁이일어나는 빌미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진영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평화가 전쟁보다 살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진영에서는 전쟁만은 피하려고 애썼던 2 차 세계대전 영국 체임벌린 수상이 서명했던 뮌헨협정의 실패 사건을 소환합니다. 영국은 독일과 뮌헨협정을 맺지만, 독일의 히틀러는 아랑곳하지 않고 폴란드를 침공하여 제 2 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북한과함께 맺었던 합의들이 결국 더 큰 전쟁의 위협을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평화는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말합니다.

각 진영에서 발언하는 정치인들의 여러 주장들은 기독교적 관점에 다 부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남북한에 대북 전단과 대남 오물 풍선을 서로

주고 받는 것과 대북 확성기 재개로 이어지는 일련의 폭력의 악순환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기도제목

하나님 아버지! 폭력으로 일삼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대치 가운데 여전히 반목하며 풍선, 확성기 등의 형태로 전쟁의 긴장상태를 고착시키는 악행들이 그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평화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힘으로 제압하는 평화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는 평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임하는 평화가 찾아 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혈몬의 이슬처럼 흘러 넘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폭력이 아닌, 비폭력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통일선교기관의 특별기도 제목 : 엔케이피플선교회

- 1) 탈북청년들이 '예수제자' 일대일 양육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 2) 탈북장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 신앙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 선교사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 3) 대한민국에 있는 3만 4천여명의 탈북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 4) 제 3국에 있는 박선생님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속히 풀려나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게 하소서.

말씀 나눔

본문: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은 상호 간에 개인적 보복을 앞세워서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월권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32 장 35 절에서 알 수 있듯이 원수 갚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스스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결코 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께서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말씀합니다(야고보서 4 장 12 절). 우리 인간은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원수에 대한 복수의 칼을 뽑아 든다면, 이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위 본문 말씀은 '가해자의 관점' 대신에 '희생자의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는 희생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곧 희생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가장 핵심적인 설명은 그분이 겪으신 폭력이 불의한 폭력이었으며, 그분은 그러한 폭력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바르고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이였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기만적이고 억압적인 나라의 통치에 대하여 십자가 상의 죽음으로 맞서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방식입니다.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비폭력의 열매'를 맺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비폭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불의하고 기만적인 사람들의 폭력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포용 사건입니다. 나아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폭력과 기만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 결국 심판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보복의 선택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전해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 놓인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길은 오직 비폭력으로서 대응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에 있습니다. 보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복에 사로잡힌 마음을 하나님께 이전해야 합니다.

최근 남북한 간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악순환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예수의 비폭력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복속해야 할 것입니다.

신학적 관점

신학자 미로슬로브 볼프(Miroslav Volf)는 폭력에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관해 논합니다. 폭력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드라마 전체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성찰"하는 데에서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검을 취하되(누가복음 22 장 36 절) 사용하지 말라고(마태복음 26 장 52 절) 하신 말씀을 취사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칼을 가진 국가는 하나님의 일군이지만(로마서 13 장 1 절-5 절), 그리스도인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한다는 (로마서 12 장 19 절) 말씀만을 가지고서 이를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그들의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누가복음 3 장 14 절)만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한 말씀만을 가지고서 폭력에 대한 온전한 기독교적 관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볼프는 십자가가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복수의 원리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를 비폭력의 원리인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마태복음 5 장 38 절-42 절)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명령에 대해 스스로 궁극적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무고한 희생자로서 폭력을 견디시고 가해자들의 잔인한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폭력을 받아내심으로써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수가 또다른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죄한 생명을 내놓기까지 선을 행하심으로 거대한 악을 극복하십니다. 볼프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무저항은, 나 자신을다른 이들의 처분에 내맡기는 전적인 자기 포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적들의 폭력을 어리석게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거울 이미지로 전락하지 않겠다는 자기 결단에 가까운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는 테러 체제에 대한 은밀한 정당화가 아니라, 그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다. 희생자이신 그분을 신성하게 받드는 것은 폭력을 왕좌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전복하는 행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비폭력과 무저항적 삶은 폭력을 왕좌에 앉히는 것이 아닌 폭력을 전복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남북한 간에 일어나고 있는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보내는 행위, 그리고 대북 방송 재개까지 이어지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폭력을 전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